

- 타이틀 : 아이는 부모를 구하기 위해 마음의 병이 된다
- 저 자 : 다카하시 가즈미
- 페이지 : 237
- 장 르 : 아동, 마음
- 발행일 : 2010년 3월 10일
- ISBN-13 : 9784480842923



아이는 부모가 좋기 때문에 "마음 병"이 되어 부모를 구하려고 하고있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말하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살기 괴로움"의 원점과 해결.

<내용 소개>

부모를 위해 숨어 있던 소년. 섭식 장애가 된 소녀. 선악이 역전된 감각을 가지고 "학대의 연쇄"에 고민하는 육아 마마.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자란 여성의 "이방인"같은 존재감의 희박함....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명하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의 원점과 그 해결책.

<저자 소개>

다카하시 가즈미

정신과 의사. 의학박사. 1953년생. 게이오대학 문학부를 중퇴,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 졸업 후 도쿄의과치과대학 신경정신과에 입국. 대학에서는 대뇌생리학, 뇌기능 매핑 연구를 실시했다. 오랜 동안 도립 마츠자와병원에 근무하며 정신과 일반 진료 외 정신과 구급 및 알코올 전문 외래, 가정 폭력, 거식증, 숨기 등의 가정 문제에 관여해왔다. 이 병원 정신과 과장을 퇴직 후 도쿄도내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상담원 교육에도 열심이며 슈퍼 비전을 실시하고 있다.

<목 차>

제 1 장 아들은 부모를 구하기 위해 숨어 있었다

학동기는 부모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도입한다

반항기의 격렬함은 부모가 가르친 "마음의 모순"에 비례한다

"엄마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하여 나는 등교 거부했다"

부모의 노후 걱정 때문에 나는 서른 두 살에 틀어 박혔다

제 2 장 딸의 섭식장애가 어머니의 삶을 회복시켰다

거식증은 "참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삶의 결과

서로가 참지 않게 되어 어머니와 딸의 인생이 회복

제 3 장 학대 받고 자란 아이는 "선과 악이 반대"로 되어 있다

학대를 받고 자란 어머니가 아이를 궁지에 몰다

학대가 멈추지 않는 것은 심리 시스템이 역전하고 있기 때문

제 4 장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아이의 불가사의한 호소

부모와의 관계를 가질 수 없으면 세계는 희석화한다

이 세상에서의 해결책은 "부모와 만나기"전으로 돌아가는 것

제 5 장 마음의 발달 단계의 최후, "우주기"란 무엇인가

살아 있는 실감이 있는 것, 없는 것의 차이

성인기의 다음, "우주기"를 추측한다

"이 세계"에서 벗어나 "우주기"에 이르는 마음의 프로세스